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1주년 추모식

追慕辭

2021. 5. 7.(금) 14:30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31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민족대학육성 운동을
주도하시며
우리 민족을 이끌 인재육성에 힘을 쏟으셨으며,
한편으로는 언론인으로서 국민계몽과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적극 주도하시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으며,
3·1운동 후에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펜으로 맞서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고하 선생의 평생 친구이신 위당 정인보 선생은 송진우 선생에 대해 평하기를 “수 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에도 고결한 지덕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이를 헤쳐나가고 끊임없는 꿈에도
빠지지 않은 독야청청의 일생이었다” 고 한 것처럼 우리국민들은 선생의 위대한 발자취를 영
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나라를 지키고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고귀한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겨,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독립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7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양 홍 준